

COACHING STAFF



GK



DF



MF



FW



NEXT HOME MATCH UP



아산 무궁화 FC

VS



대전 시티즌

K LEAGUE 2 | 12R

2018. 5. 19(토). 19:00 이순신종합운동장



아산 무궁화 FC

TODAY MATCH UP
K LEAGUE 2 | 9R

2018. 4. 29(토). 17:00 이순신종합운동장



광주 FC



아산의 심장에 자리한 '특급 엔진'

이명주는 이미 K리그에서 최정상에 오른 슈퍼스타다. 포항 시절 K리그 최다 연속 공격 포인트(10경기)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공격력을 발휘한 바 있으며, 중원 장악 능력과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팀에 활기를 불어넣는 '특급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 이명주가 아산 유니폼을 입었을 때 많은 이들이 아산이 K리그(클래식) 승격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기대감을 품은 이유다. 이명주 역시 그 기대에 점차 부응하고 있다. 서서히 경기 출전수를 늘리며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하는 등 상승세다. 이명주는 팬들이 원하는 아산의 승격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광주전 승리 약속은 당연하다.



MF 이명주 PROFILE

생년월일	1990. 4. 24.	데뷔	2012년 포항 스틸러스	K리그 통산	97경기 19골 21도움
포지션	MF	소속 팀	포항 스틸러스(2012~2014) - 알 아인(2014~2016) - FC 서울(2017) - 아산 무궁화 FC(2018~)	아산 통산	4경기 1도움
신체 조건	175cm 68kg			2018시즌 기록	4경기 1도움
등번호	29				

Q. 축하한다. 아빠가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빠가 되면서 선수로서 더욱 동기 부여를 느꼈을 법하다.

A.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동기 부여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훈련이나 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3월 18일 부산전 교체 투입을 통해 아산 데뷔전을 치렀고, 7일 부천전에서 첫 선발 출전해 도움까지 기록했다. 새 팀에서 보내는 시즌 초반이 만족스러운가?

A. "물론입니다. 좋은 선수들과 뛰고 있는 만큼 더욱 즐겁게 훈련과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즐겁게 경기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2018시즌 아산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미드필더 라인이다. K리그 최고 미드필더라 평가받는 이명주 선수도 경쟁이 쉽지 않을 듯한데

A. "맞습니다. 누가 출전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요. 하지만 저는 늘 경쟁을 거듭해왔고, 여기서도 그 점은 변한 게 없어요. 훈련장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건 항상 같습니다. 이런 경쟁은 저는 물론이며 동료들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서울 시절부터 동료였던 주세종과 함께 아산 유니폼을 입었다. 서울에서 보였던 멋진 콤비 플레이를 팬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차세대 중원 사령관으로 불리는 황인범과는 어떤 호흡을 보일지 궁금해 하는 팬들이 많다.

A. "(주)세종이와 여기서도 함께 할 수 있어 무척이나 든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만난 (황)인범이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체계 없는 장점을 인범이는 가지고 있어요. 중원에서 더 좋은 팀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Q. 홈에서 펼쳐질 9라운드에서 상대할 광주 FC의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떤 것에 주안점을 뒀야 하는가?

A. "광주는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힌 강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강하게 승부해야 할 것 같아요.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압박하며 우리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홈 광주전 승리와 아산의 K리그 승격을 바라는 팬들에게 각을 남긴다면?

A. "홈에서는 우리 팬들의 응원이 늘 곁에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는 이유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산의 승격을 바라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 이명주 선수와 함께 하는 아산 중원은 'OOO'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명주 선수는?



황인범 "아산 중원은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대를 만나든 편치 한 방에 주눅들게 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명주형과 함께 해서 더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편하게끔 간결하게 패스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연결 고리 구실을 해주는 명주형의 장점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단숨에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웃음). 사실 밖에서 보던 명주형은 정말 좋은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주세종 "아산의 중원은 '무한 경쟁'. 저마다 장점이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라 끝까지 경쟁을 거듭해야 하니까요. 명주는 적으로 상대하면 정말 까다로운 선수죠. 패스·독점력·수비력 등 어디 하나 부족한 구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뛰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플레이하니 서로의 장점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명주보다 나은 게 하나는 있습니다. 바로 헤더입니다.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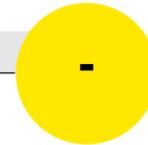


VS



'상승세' 아산, 광주를 제물삼는다

역대 전적



골득실



KEY PLAYER

MF 조성준



과거 안산 연고 시절을 포함하면 총 열 차례 맞붙어 5승 1무 4패라는 팽팽한 전적을 기록했지만, 아산 시대를 연 후에는 광주를 처음 맞상대한다. 두 팀은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팀은 공히 세 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달리고 있는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산이 광주보다는 확실히 돋보인다. 광주가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 FC에 5-0이라는 대승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이전에 치른 일곱 경기에서는 '이진법' 축구라 불려도 될 만치 골을 넣는 데 애먹었던 바 있다. 하지만 확고한 공격력을 지닌 아산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 열 차례 홈 경기에서 교박교박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안방에서는 매서운 공격력을 과시 중이다. 주목할 만한 공격 자원은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2골 1도움을 기록, 최근 세 경기 연속 무패에 크게 기여한 조성준이다. 빠른 발과 상실한 경기 자세를 갖춘 조성준의 측면 플레이는 광주의 터치라인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PLAYERS POSITION

4-4-2

FW		FW	
18 고무열 7경기 3득점	30 김현 7경기	12 김훈도 1경기	
MF		MF	
9 한의권 8경기 1득점 1도움	6 김중국 8경기 1도움	7 이창용 7경기	15 안현범 5경기
10 이재만 8경기 1도움	11 서용덕 175cm 65kg	13 김영남 178cm 75kg	17 조성준 4경기 2득점 1도움
19 임창균 174cm 64kg	22 허병산 2경기 1득점	14 김민균 4경기 2득점	77 김부관 172cm 60kg
23 김도혁 1경기	24 박세직 2경기	29 이명주 4경기 1도움	66 황인범 6경기 1득점
25 조범석 182cm 76kg	28 주세종 5경기	88 김선민 168cm 65kg	
DF		DF	
3 이주용 7경기	5 이용 187cm 83kg	4 김상필 183cm 84kg	2 박선용 1경기
8 이은림 1경기	16 김동진 177cm 74kg	33 이한샘 1경기	32 김봉래 177cm 65kg
39 민상기 7경기	30 김동철 4경기	20 김준수 185cm 78kg	90 구대영 4경기
GK		GK	
1 박형순 8경기 6실점	21 박주원 190cm 77kg	31 양형모 185cm 81kg	41 최봉진 193cm 83kg